

“우리생에 이런 일이”… 콧대높은 아카데미, 韓영화가 정복

영화 ‘기생충’ 4관왕, ‘월드컵 4강 · 김연아 金’ 벼금
설마 했던 일이 현실로…‘핸디캡 극복한 쾌거’ 공통점

우리 생애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국영화가 콧대 높은 아카데미를 정복하리라 생각한 이는 과연 몇이나 됐을까.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9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엔젤레스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인 작품상을 비롯해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 등 4개부문을 석권해 한국영화 101년만에 새역사를 썼다.

‘기생충’의 쾌거는 설마 했던 일이다. 이는 태국전사의 월드컵 4강, 김연아와 박태환의 꿈으로 여겨졌던 피겨스케이팅과 수영에서 각각 올림픽 금메달을 따낸 것 이상가는 대단한 업적이 다.

2002월드컵서 한국 축구 대표팀이 4강을 차지한 일은 지금 생각해도 기적 그 자체였다. 그 때나 지금이나 한국축구는 이런과 더불어 아시아를 양분하고 있지

만 세계수준과는 격차가 있었다. 당시 한국이 16강에 올랐을 때 외신들은 주최국 이점을 톡톡히 누렸다며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리라 예상했다.

하지만 히딩크 감독의 독려속에 태국전사들이 16강서 이탈리아(2-1승), 8강서 스페인(승부차기 5-3승)을 격파하고 4강에 진출하자 내로라 하는 국제축구 전문가들은 “놀랍다”는 말만 되풀이 했을 뿐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꿈은 이뤄진다’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우리 역시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할 정도였다.

피겨스케이팅과 수영 올림픽

금메달은 한국 스포츠가 도저히 넘지 못할 산으로 보였다. 기술과 훈련으로 따라 잡을 수 없는 체격

조건이라는 생물학적 장벽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2008년 이전

까지 정설로 여겨졌다.

2008베이징 하계올림픽 수영 남자 자유형 400m에서 박태환은

3분41초86으로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었다. 나란히 레이스를 펼친 장린(중국·190cm), 라슨 젠슨(미국·185cm)은 박태환(183cm) 보다 키도 컸고 팔길이도 월등했지만 박태환의 힘을 이기지 못했다.

피겨 여왕 김연아의 올림픽 금메달은 충격적 사건이다. 피겨, 특히 여자 피겨는 러시아 등 동구권의 독무대였다. 팔 다리가 긴 유전적 요소, 수백년이 넘는 안무 역사, 심사위원 장악력 등 다른 대륙이 감히 넘보지 못할 철의 장벽을 치고 있었다. 겨우 미국 정도가 국력을 바탕으로 틈새를 비집고 들어왔을 정도.

이런 가운데 김연아는 2010밴쿠버 동계올림픽을 통해 피겨 여자싱글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 냥 금메달이 아니라 총점 228.56으로 은메달리스트(아사다 마오 205.50점)와 동메달리스트(조애니 로세트 202.64)를 압도한 완벽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영화 ‘기생충’의 제92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국제장평화화상’ 수상 장면을 바라보고 있다. 영화 ‘기생충’은 한국 역사 101년만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초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한 1등이이었다. 김연아는 음악과 안무 소화능력, 스케이팅 기술 모두 당대 세계최고였고 팔 다리도 서구체형처럼 길쭉 길쭉해 미적 평가에서도 호평을 이끌어 냈

다.
봉준호 감독과 영화 ‘기생충’이 우리에게 던진 물음은 ‘꿈을 믿습니까?’가 아니라 “꿈은 곧 현실이다, 꿈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가”다. 이에 따라 우리는 제2의 봉준호, ‘기생충’, 김연아, 박태환, ‘어게인 2002’를 목표로 지금 당장 길을 떠나야 하게 됐다.

“땡큐 아카데미”

트로피 눈을 가린 ‘기생충’ 다운 SNS 수상소감

‘기생충’의 아카데미 수상 소감은 낭만랐다.

영화 ‘기생충’(감독 봉준호)은 9일(현지시간, 한국시간 10일)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열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이날 ‘기생충’은 각본상과 국제극영화상, 감독상 그리고 최고상에 해당되는 작품상까지 수상하며 총 4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영화의 새 역사, 또 아카데미의 새 역사를 일군 ‘기생충’ 팀의 낭보에 한국은 물론 전세계 영화팬들도 뜨거운 관심을 보내고 있다.

시상식 직후 네이션들 사이에서 또 하나의 화제를 모은 것은 ‘기생

충’의 특별한 수상소감이다. ‘기생충’은 공식 SNS에 “Thank you, Academy”라는 글과 함께 아카데미의 트로피에 눈을 가린 사진을 공개했다. 눈을 가리는 것은 ‘기생충’의 포스터에서 보여준 정지로, 영화의 흥행과 함께 관객들 사이에서는 패러디 열풍이 불기도 했던 터. ‘기생충’ 팀의 센스있는 수상소감은 전세계 네이션들에게 인용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Motion Picture Arts & Scien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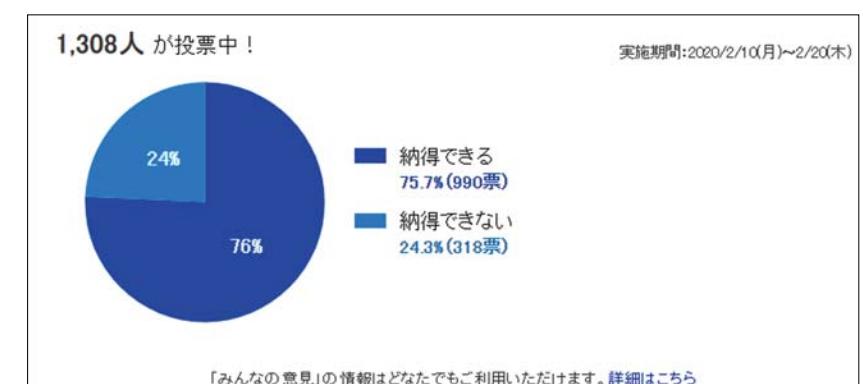
한국영화는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역사상 최초로 본상 후보에 올랐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편집상, 미술상, 국제극영화상(구 외국어영화상)까지 총 6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됐고 각본상, 국제극영화상, 감독상, 그리고 최고상인 작품상까지 총 4개상을 수상했다.

기생충 4관왕… 누리꾼들 “쿨하게 인정한다”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작품상 · 감독상 · 국제극영화상 · 각본상을 거머쥐며 4관왕에 오르자 일본 네이션들은 대체로 쿨하게 인정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본 포털 사이트 애후재팬에서 607개의 추천을 받은 베스트 댓글은 ‘한국이라면 뭐든지 비판하면 된다는 감성은 시야를 좁힐 뿐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좋은 작품이었고…’라는 담담한 감상을 전했다.

한 네이션은 “정말 재미있으니까 납득. 한국영화라서 안 본다는 건 정말 아깝다. 이만큼 많은 것으로 채워지고, 게다가 모든 게



이치에 맞는 영화는 좀처럼 없다. 완벽했다.”는 댓글을 남겨 3737건의 추천을 받았다.

한편 이후재팬에서는 ‘기생충’의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에 납득하는가’를 주제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1308명이 투표한 가운데 990명(75.7%)이 ‘납득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